

광주FC 승리 지키는 '3인 3색' 수문장

김경민, 우승 이끈 10년차 베테랑 ... "1부리그 베스트11 목표"
이준, 김경민 부상 공백 골대 지킴 ... "안정감으로 승부하겠다"
노희동, 자유계약 광주 유니폼 ... "형들과 다른 점은 젊음·패기"

"3인 3색" 수문장들이 광주FC의 승리를 지킨다. 태극 치앙라이에서 2차 동계훈련 중인 광주에는 3명의 골키퍼가 있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은 34경기 에 나와 28실점으로 광주의 우승을 이끈 10년 차의 베테랑 김경민(32), 김경민의 부상 공백에서 골대 지킴을 맡은 이준(26) 그리고 2002년생 막내 노희동(21) 등 3명이다. 이들에게 2022시즌은 모두 특별했다. 경북미용예술고를 졸업하고 K3리그 김해시청에 경험을 쌓은 노희동은 지난해 신인 자유계약을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골키퍼 포지션 특성상 프로 첫해 데뷔가 쉽지 않지만 광주가 우승 질주를 하면서 노희동에게 기회가 왔다. 노희동은 충남아산과의 2022시즌 44라운드 최종전에서 기다렸던 데뷔전을 치렀다. 노희동은 "기본 좋았다. 처음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었다(웃음). 경기 영상도 많이 봤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즐겁게 재미있게 하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태극 동계 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노희동이 짚는 자신의 장점은 '젊음'. 그는 "형들과 다르게 젊음으로 승부하겠다"며 막내 골키퍼의 패기를 보여줬다. 이준에게도 2022시즌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이준은 윤평국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이승훈과 포항에서 광주로 건너왔다. 그리고 이준은 김경민의 부상 공백에서 역할을

잘 해주면서 5경기에 나와 광주의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준은 "밥도 맛있고, 날씨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며 "지난해 몸은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팀은 좋았지만 올해는 팀도 개인도 좋은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여기서 골키퍼 3명이 의기투합해서 잘하면 좋은 시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안정감으로 승부하겠다. 2023년은 안정감으로 하겠다"고 수문장 경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서울랜드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로 온 김경민은 지난해 광주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면서 K리그2 베스트 11 시상식 단상에도 올랐다. 최고의 한 해였지만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우승으로 가는 길을 닦은 김경민은 39라운드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장파열 부상을 당해 그라운드 밖에서 우승 확정 순간을 지켜보아야 했다. 대신 동료들은 김경민의 유니폼을 들고 기쁨의 순간들을 함께 했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도 만든 김경민은 "2022년은 결핵하고 아이가 생긴 그런 느낌의 해였다. 그만큼 뭔가 가족을 형성한 느낌이다"며 광주를 '가족'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나의 신장과 우승컵을 팬분들에게 안긴 것 같다(웃음)"며 "또 정말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영광스러웠다. 시상식에서 긴장도 많이 됐고, 감회가



태극 치앙라이에서 동계 훈련 중인 광주FC의 골키퍼들이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희동, 신정환 골키퍼 코치, 김경민, 이준.

새로웠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K리그1으로 올라왔으니까 또 한 번 베스트11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독님과 K리그1에서 좋은 경기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 시즌에도 광주의 꿈은 크다. 잔류가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민은 "지난해 시작하면서 감독님과 우승을 생각했다. 올해도 역시 감독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 목표를 크게 잡고 있다. 지난해 경험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선수는 항상 만족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조금 더 노력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2023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즌이다. 감독님부터 코칭스태프,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장에 오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만큼 경기장에서 즐거운 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폴리 독주 체제 ... 김민재, 유럽 무대에서 우승하나

승점 50점 돌파 선두 질주
2위 AC 밀란 0-4 대패
유벤투스는 승점 15점 꺾어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7)가 주전으로 활약하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세리에A 우승 레이스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나폴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점 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2위 팀 AC 밀란이 대패로 무패 행진을 중단하는 등 경쟁 팀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AC 밀란은 2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라치오와의 2022-2023 세리에A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4로 완패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승 3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AC 밀란은 시즌 3패째를 기록, 2위(승점 38·11승 5무 3패)는 지켰으나 선두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번 시즌 세리에A에선 김민재의 소속팀인 나폴리가 승점 50(16승 2무 1패)를 돌파하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나폴리는 이날 5일 인터 밀란과의 16라운드에서 0-1로 져 이번 시즌 정규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3연승을 내달리며 반등했다. 16라운드 패배 때 나폴리와 2위 AC 밀란의 격차가 승점 5점인데, 이후 3경기에서 나폴리는 연승을 이어간 반면 AC 밀란은 2무 1패에 그치며



AC 밀란 루카쿠의 공격을 차단하는 나폴리 김민재. /연합뉴스

순식간에 승점 차가 12로 벌어졌다. 여기에 18라운드까지 승점 37(11승 4무 3패)로 3위를 달리던 유벤투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이탈리아축구연맹으로부터 승점 15를 깎이는 징계를 받아 10위로 떨어지며 나폴리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나폴리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리그 정상 복

귀에 도전한다. 나폴리가 우승하면 이번 시즌 합류한 김민재는 유럽 무대에서 첫 우승을 경험하게 된다. 이날 AC 밀란을 완파한 라치오가 3위(승점 37·골 득실 +20)로 도약했고, 인터 밀란(골 득실 +13)과 AS 로마(골 득실 +9)가 같은 승점 37로 각각 4,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틀넘, 잉어 단주마 영입 임박...손흥민 입지 '흔들'

손흥민(31)이 뛰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 홋스퍼가 네덜란드 잉어 아르나우트 단주마(26) 영입을 통해 공격진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축구 이적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틀넘은 이날 오전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후 비아레알, 단주마 측과 각종 서류 작업을 끝낸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이적은 의무 이적 등 조건이 붙지 않은 임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하는 단주마는 가속력과

저돌적인 돌파가 돋보이는 네덜란드 출신 잉어로, 왼 측면이 주 활동 무대다. 양발을 사용한 마무리도 강점으로 꼽힌다. 2020~2021시즌 잉글랜드 2부리그인 챔피언십 본머스에서 15골을 넣었고, 비야레알(스페인)로 이적한 2021~2022시즌에도 리그 10골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이번 시즌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0경기에 출전 2골을 기록 중이다. 단주마는 손흥민, 데얀 쿨루세브스키 등 기존 2선 공격 자원들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흥민은 올 시즌에는 리그 19경기에 출전 4골

3도움으로 지난 시즌만 못한 모습을 보인다. 지난 시즌 그는 리그에서만 23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현지에서는 단주마가 고전 중인 손흥민을 대신해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신문 이브닝 스탠더드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히사를리송, 쿨루세브스키의 상황 등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단주마를 긴급히 데려오려는 이유"라면서도 "왼쪽 윙어라는 점에서 경기력을 올리기 위해 분투 중인 손흥민의 상황이 단주마 영입의 가장 큰 요인이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명품 3루수 스콧 롤렌, MLB 명예의 전당 입성

A 로드·매니 라미레스는 탈락

공수를 견비한 3루수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주름잡은 스콧 롤렌(48)이 올해 명예의 전당 입회자로 뽑혔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는 명예의 전당 입회자를 선출한 투표 결과를 25일(한국시간) 공개했다. 롤렌은 입회 기준선(득표율 75%)을 넘는 득표율 76.3%(297표)로 올해 투표지에 이름을 올린 2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 티켓을 손에 넣었다.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은퇴한 롤렌은 은퇴 5년 후 명예의 전당 입회 후보가 됐다. 첫 번째 도전인 2018년 투표에서는 득표율 10.2%에 그쳤지만, 이후 해마다 득표율을 끌어올렸고 지난해에는 탈락자 중 가장 높은 63.2%의 득표율을 찍은 뒤 6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명예의 전당에 이르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96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롤렌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2002~2007년), 토론토 블루제이스(2008~2009년), 신시네티 레즈(2009~2012년) 4개 팀에서 17년을 뛰었다. 1997년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등극한 필성부른 명적이었다. 통산 성적은 타율 0.281, 홈런 316개, 타점 1천



287개, 안타 2천77개다. 특히 2루타를 517개나 때렸다. 수비 실력도 뛰어난 8번이나 골드글러브를 끼었고 올스타로도 7번 선정됐다. 데뷔해 은퇴할 때까지 3루수로만 뛴 롤렌은 치퍼 존스와 더불어 1982년 이래 BBWAA 투표로 명예의 전당에 입회한 선수 중 둘 뿐인 전문 3루수다. 역대 3루수로는 18번째로 명예의 전당 한 자리를 차지한다. 올해 투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 출신 강타자 토드 헬턴은 5번째 도전에서 입회 기준에 11표가 모자란 득표율 72.2%에 머물러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에서 2루수로 활약한 제프 켄트는 마지막 10번째 도전에서 46.5%의 득표율에 그쳤다. 거포 알렉스 로드리게스(35.7%), 매니 라미레스(33.2%)는 선수 시절 금지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탓에 이번에도 입회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현역 때 놀라운 성적을 남기고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사인 스캔들'의 주역으로 지목된 카를로스 벨트란은 올해 첫 번째 도전자 중 가장 높은 46.5%의 득표율을 기록해 명예의 전당 입회 확률을 키웠다. /연합뉴스

트럼프, 시니어 골프 1R 치지도 않고 ... "힘 좋아 우승" 황당 주장

도널드 트럼프(77)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린 시니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밝혔지만 1라운드는 아예 출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역 신문 팜비치 포스트가 2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자랑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장에서 우승한 건 큰 영광이다. 멀리, 똑바로 골프볼을 날리는 뛰어난 골퍼가 많이 출전해 경쟁했다"면서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힘과 정력이 좋아야 한다.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건 힘과 정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나라를 다스릴 힘과 정력이 있다"고 썼다. 고령에 건강 문제가 종종 거론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스테이블 포

드 방식으로 벌어진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요일 1라운드에 아예 나서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라운드 경기가 열린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열렬한 후원자인 리네티 하더웨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하더웨이의 장례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치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신 목요일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라운드했고 대회 운영팀에 그때 성적을 1라운드 성적으로 대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일요일 경기장에서 나와서 리더보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위를 5점 차로 앞선 1위에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 골프 기자인 릭 라일리는 2019년 출간한 '커맨더 인 치트'라는 책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린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지도 않고도 우승하거나, 스코어를 속여서 우승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